

한말 호남 최초 의병장, 송사 기우만

노성태 원장의
남도인물열전

〈83〉 기우만



송사 기우만 영정

호남 유림 종장(宗匠)이 되다

한말 전라도는 최대 의병 항쟁지였다. 1909년의 경우, 전투의 47.2%가 전라도 땅에서 벌어졌고, 참여 의병의 60.0%가 전라도인이었다.

전라도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분은 장성 출신 송사 기우만이다. 노사 기정진의 손자로 남도를 대표하는 성리학자였지만, '의병장'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이유다.

한말 최초로 거병한 의병장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은 1846년(헌종 12)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에서 기만연과 연안 이씨 사이에서 3남으로 태어난다. 자는 회일(會一), 호는 송사(松沙), 본관은 행주다.

기우만은 8살 때부터 조부 기정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는다. 10살 때 '논어' 등 사서(四書)를, 13살 때 '자치통감'을, 14살 때 '심경(心經)'을, 16살 때 '주역', '예기', '춘추'를 읽는다.

25세 되던 1870년(고종 7) 진사시에 합격하지만, 1874년(고종 11) 실시된 문과에는 낙방한다. 1879년(고종 16) 노사 기정진이 사망한 뒤 조부의 '존화양이론'을 계승하면서 호남 유림의 종장으로 추대된다. 당시 그의 나이 34세였다.

동학농민군을 '도적'으로 간주하다



금성토평비(나주 객사 금성관 뜰)



장성의병 거병지, 장성향교 전경

송사 기우만은 37세 되던 1882년(고종 19), 종9품 익릉 참봉에 제수되지만 나이가 지 않았고, 벼슬보다는 조부의 유업 계승이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부의 문집인 '노사집'(蘆沙集)을 간행하고, 문답을 정리하면서 후학을 양성하던 그에게 닥친 첫 시련은 동학농민혁명이었다.

전통적인 유교 가치관과 왕조 체제 수호를 천명하고 있던 유학자들은 동학농민군을 유교적 질서를 파괴하는 집단으로 간주했고, 농민들의 봉기를 불경스러운 행위로 보았다. 이는,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농민군에게 죽임을 당한 중앙군 선봉장 이학승을 기리는 순의비문을 당대 유림의 대표격인 면암 최익현이 쓰고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동학농민군에 대한 기우만의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자 향회를 열어 동학도를 물리칠 방도를 모색했고, 동학에 가담한 유생들을 배척했다.

전라남도 관찰사 이도재가 동학도를 물리칠 방책을 묻자, 편지로 답하기도 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나주성을 공격한 동학농민군에 맞선 나주 목사 민종렬과 나주 수성군의 공을 기리기 위해 1885년 나주 유림이 주축이 되어 건립한 비가 '금성토평비'(錦城討平碑)인데, 그 비문을 쓴 이도 기우만이었다. 지금 '금성토평비'는 나주 금성관 앞뜰에 서 있다.

'금성토평비'는 '송사집' 25권 '비'(碑)에 '나주평적비'(羅州平賊碑)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토평'은 '무력으로 평정하다'는 뜻이고, 도독 '적'자를 쓴 '평적'은 '적을 평정하다' 또는 '도적을 물리치다'라는 뜻이니, 동학농민군을 반란군이나 도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금성토평비에는 나주 수성군과 동학농민군과의 여섯 차례 전투가 정리돼 있다.

"성을 지키는 병사의 사기가 날로 쌓여 1명이 100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됐고, 모두 한번 싸우기를 바랬다. 무안에서 적(敵)을 만나 여춘(汝春, 무안 출신의 동학고도인 이상술)이 죽음을 당했고, 두 번째는 서문에서 승리해 최경선이 밤에 도망을 갔으며, 세 번째는 사창에서 이겨 조소굴을 태워 없앴고, 네 번째는 용진산에서 이겨 오권선이 겨우 죽음을 모면했다. 다섯 번째는 고막에서 승리했는데, 패배해 죽은 시체가 들뜬을 메

웠다. 여섯 번째는 남산에서 이겨 적이 멀리서 보고 저절로 무너졌다. 관군이 출동할 때는 항상 많이 죽이는 것을 경계해 도망치면 끝까지 쫓아가지 아니하고, 겁을 줘 귀순시키고 무기과 장비를 빼앗으니 적 또한 사기가 떨어져 재기할 힘이 없었다."

나주 수성군과 동학농민군의 접전 상황을 기술한 내용인데, 나주 수성군은 사기가 충천한 불패의 군대임에 반해 동학농민군은 '적'으로, 사기가 떨어져 재기할 힘마저 없는 무리로 서술하고 있다.

'호남대의소' 대장이 되다

1895년(고종 32) 명성황후가 일본 남인에 의해 시해되고, 그해 겨울 단발령이 발표된다.

단발령이 발표되자 기우만은 국모를 시해한 원수에게 복수하고 단발령을 거둬 달라는 상소인 '을미소'(乙未疏)를 올린다.

그는 "황후의 원수는 곧 신하들이 함께와 신상담해야 합니다...대개 나라는 망하지 않음이 없으니, 모발을 훼손해 존재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발을 보존해 망하는 것이 낫습니다"라며 '국모를 죽인 원수에게 복수하고 단발령은 철회돼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다.

유생들이 단발령에 특히 불만을 나타냈던 것은, 당시 상투는 인륜이 기본인 효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었다. "머리를 깎는 것보다는 나라가 망하는 것이 더 낫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연유였다.

1896년(고종 33) 1월 제천 의병장 유인석의 격문이 호남 지역에 도착하자, 기우만 역시 의병을 일으키기 위해 동지를 규합한다. 그해 2월7일(음력), 그는 장성 향교에서 기정진의 문인 고광순·정의림·김익중 등 200여 명과 함께 거병한 후 나주 의병과 연합하기 위해 나주로 이동한다.

호남대의소(湖南大義所)의 대장이 된 기우만은 2월14일 임진의병장 김천일의 사우 옛터에 단을 설치하고 제문을 바친 후 출병을 선언한다.

출병 선언 후 사방에 통문을 돌려 30일 광주 집결을 호소한다. 그러나 2월27일 남로 선유사 신기선이 내려와 의병의 해산을 명령하는 왕명을 전하자, 기우만은 통곡하며 의병을 해산했다.

그리고 의병을 일으킬 때의 명분을 이루지 못했기에 '적을 토벌하지 않으면 장(獐)이라고 쓰지 못하고, 장이라고 쓰지 못하면 상복을 벗지 못한다'라는 '춘추'(春秋)의 대의에 따라 백립과 상복을 입고 담대현이 바라보이는 장성의 삼성산에 들어가 삼산



유림광화사적비(장성 향교 앞)

재(三山齋)를 짓고 은둔한다.

기우만은 이후 몇 차례 거병 시도가 불발되자, 1909년 호남에서 활약했던 12명 의병장의 전기인 '호남의사열전'을 저술해 후대에 전하는 일을 자신의 책무로 여겼다. 12명 의병장은 기삼연·김용구·김봉규·박경래(박도경)·김준(김태원)·전수용(전해산)·김영엽·김익중·김치곤·박영건·정원숙·성경수 등이었다.

일제의 신문에도 담당했다

1906년 10월, 기우만은 백낙구와 의병을 모으려다 해 체포된 후 광주 경무서에 수감된다. 일본 순검은 의병 활동 중 체포된 백낙구의 범죄사실 진술서인 공초(供招)를 꺼내 보이며 "시킨 일이 있는가"라고 묻는다. 이에 기우만은 "나는 백낙구와 비록 면식은 없지만, 의리도 같고 마음도 같다. 마음이 같고 의리가 같으면 지시하지 않아도 지시한 것이며, 시키지 않아도 시킨 것으로, 백낙구가 나를 끌어들이 시켰다고 해도 빈말은 아니다"라고 답한다.

기우만의 위 신문 기록은 전북 임실 출신의 유학자 겸재 조희제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항일운동과 애국지사들의 행적 등을 기록한 '염제야록'(念齋野錄)에 나온다. "마음이 같고 의리가 같으면 지시하지 않아도 지시한 것이며, 시키지 않아도 시킨 것이다"라는 답변은 우문에 현답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순검은 또 "지금 백발의 연세에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상하지만, 이런 뜻이 있었다면 왜 최익현이 거사할 당시



송사집

에 함께 거사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비웃듯이 묻는다.

기우만은 "한 번도 적을 토벌하고 복수하는 일을 생각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 손에는 촌철(寸鐵)도 없지만, 가슴 속에는 형사 만명의 갑병(甲兵)이 있어 강물 소리를 들으면 철갑옷을 입고 동쪽 오랑캐를 정벌하려고 생각했고, 산에 나무를 보면 의병(疑兵, 가짜군사)을 만들어 오랑캐를 쫓아내기를 위해 장차 변장자(卞莊子)가 두 마리 호랑이를 잡는 방법을 이용해 서서히 의병을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움직이려고 했는데, 혹은 먼저 움직이고 뒤에 움직이는 것은 각기 보는 것이 다를 수 있을 뿐"이라고 답한다.

"내 손안에는 한 명의 병사도 없지만 뜨거운 가슴 속에는 만 명의 병사가 있다"는 대답 속에, 호남 유림의 종장다운 기개가 엿보인다.

그가 거병해서 이기는 비법으로 '사기'(史記) 권70, '장의열전'(張儀列傳)에 나오는 변장자가 두 마리 호랑이를 잡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변장자는 춘추시대 노나라의 대부인데, 용맹으로 이름이 난 분이다. 그가 호랑이 두 마리가 있는 것을 보고 사냥하려 하자, 어떤 사람이 "저 두 호랑이가 지금 손을 잡아먹고 있으니, 배불리 먹은 뒤에는 반드시 싸울 것이고, 싸우게 되면 큰놈은 상처를 입고 작은놈은 죽을 것이다. 그때 상처 입은 놈을 때려잡으면 한 번에 두 마리를 잡았다는 이름이 날 것"이라고 했다. 변장자가 그대로 해 호랑이 두 마리를 다 잡게 됐다. 계략이 통쾌하다.

기우만은 1906년 10월 백낙구 의진의 배후로 지목돼 광주 경무서에 체포되지만, 곧바로 풀려난다. 그러나 1907년 3월, 다시 '을사오적' 암살을 사주했다 해 영광 경무서에 체포돼 4월 서울로 압송되고 옥에 갇힌다. 이때에도 일본 순검은 "강상원 등 여러 사람이 5대신을 암살하려다 발각돼 체포됐는데, 그들의 공초에 '지참봉이 장성의 가산림(奇山林)과 모의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신문한다.

이에 기우만은 "강상원과 지참봉이 와서 음모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만일 그분들이 와서 음모를 했다면 나는 반드시 5적을 살해하는 것이 옳다고 했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강상원은 전북 금산 출신으로 1907년 나철의 '자신회'에 가담해 '을사5적' 권중현을 저격했다가 체포된 후 10년 유배형을 받은 지사였다.

송사 기우만은 죽기 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긴다.

"내 나이가 80을 바라보니 죽는 것은 한이 없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원수가 소멸되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는 사후 조부와 함께 장성 고산서원에 배향됐고 제자들에게 의해 '송사집'이 간행된다.

1980년,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한다.

〈노성태·남도역사연구원장〉

